

##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미술상담 사례연구

홍미영<sup>†</sup>

대전용운초등학교

조봉환

공주교육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부적응 아동에게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도와줌으로써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대전광역시 Y초등학교 6학년 중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실시하여 총점이 100점 이하인 아동 중 최하점수인 아동 4명을 부적응 아동으로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고, 2008년 9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 2회(회기당 60분)씩 총 12회기로 실시하였으며, Y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변화를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적응 검사'를 사전·사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부적응 아동의 심리 상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사검사(KSD)를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실시하여 그림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매 회기마다 각 아동의 행동 특성을 기술하는 질적 분석을 통하여 부적응 아동이 미술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켰으며,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으며, 부적응 아동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주요어: 미술상담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사회성 발달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홍미영 / 대전 용운초등학교 / (300-820) 대전 동구 용운동 도서관2길 /  
Tel: (042) 284-0993 / E-mail: 0731red@hanmail.net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로 교육 수요자로 하여금 기존의 발달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과 발상으로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꾸려 나가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간상이 요구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전인 교육적 측면에서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아동의 인성변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습자 중심, 인성 중심, 체험활동 중심 등 아동을 위주로 한 다양한 자기 주도적 실천적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재복, 1999).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아동들은 사회에서 창의적 적응과 자기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과 사회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화정, 2002).

그러나, 현재의 학교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내용 및 방법, 개개인의 자율성, 적성 등은 고려되지 않고, 학급내의 집단 안에서 소외되거나 위축되어 있으며, 학급 규칙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등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활동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교사와 교우와의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홍정화, 2004).

부적응이란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 내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또는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자기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동시에, 환경을 변화시키지도 못함으로써 자기 내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아울러 부적절한 대응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건전하게 조절하지 못한 나머지 심리적 불안감, 긴장, 갈등, 초조 그리고 자기소외, 열등감, 자포자

기 등을 느끼면서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비도덕적인 이탈행동을 하거나 신경증 등으로 고통을 겪는다(조대봉, 1992).

윤진희(2003)는 정상적인 지적 능력이 있어도 정서적인 이유로 인하여 주위환경에 조화되지 못한 상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회질서, 규범에 조화되지 못한 상태 또는 대인관계나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과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을 하는 아동을 부적응 아동이라고 하였다.

아동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행동발생 배경은 학교공부예의 부적응, 교사와 아동간의 사회적 상호관계의 기회제약, 소외된 교우관계, 학교규칙 위반, 소극적인 학교행사 참여 등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학교 부적응 아동은 심리적 긴장이 생기고 마음의 균형이 상실되며, 적응상태와는 반대로 불안, 절망, 불평, 무능력, 소극적,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됨에 따라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교나 가정,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자신의 개발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 아동 개인의 자아개념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황유경, 2001).

이러한 부적응 행동은 단순히 초등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및 성인기로도 연결되므로 초등학교 시절의 성공경험은 부적응을 예방하는데 그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생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서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술상담은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 감정을 표출하게 되므로 내재되어 있던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Malchiodi는 미술의 이미지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자아표현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최재영, 김진연, 2000)고 하였으며, Rubin은 미술이 모든 연령의 아동들, 신경과민증, 조울증, 낮은 자존감,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 저항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 발달지체가 있는 사람들,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의학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등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최소영, 김혜정, 2007).

부적응 행동의 아동들은 미술 활동의 진행 과정에서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바꾸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개발하고, 창조적 성취감을 통해서 자기가치의 상승을 경험하며 미술작업과 다양한 재료경험을 통해서 집중력 증진 및 인지발달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동작업의 경우 서로 상호간의 의사교환을 하거나 협동 등을 통하여 대인관계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홍정화,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대체로 아동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미술 매체를 이용한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양적연구보다는 사례 중심의 질적 분석 접근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초등학교 아동들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발달하여 학교생활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미술상담이 대상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변화가 있는가?

나. 미술상담이 대상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변화가 있는가?

다. 미술상담을 통해 대상 아동이 다른 아동과의 관계형성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이강영(2001)의 ‘초등학교 부적응 아동의 지도 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학급의 부적응 아동 수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 전체적으로 교사들 중 48.3%는 학급에 부적응 아동이 1~2명, 31.7%는 3~4명 정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Y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 중 이전학년 담임 및 현재 담임의 관찰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있어 정서적·사회적 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염려되는 아동들에게 학교생활 적응 검사를 실시하여 162점 만점에 점수가 100점 이하인 어린이 중 하위 4명을 선정하여 점수가 낮은 아동 4명을 선정하여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 연구 도구

### 가. 학교생활 적응 검사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를 참고로 32문항으로 수정한 것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영역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의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별로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형식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채택하였다.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으로 규정하였다. 이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6이다.

### 나. 자아존중감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개정한 자아존중감 검사를 참조하여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며 4개의 하위 변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아존중감 검사의 채점은 Likert식 척도로써 각 문항마다 1~5점까지 대상자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84이다.

### 다. 사회성 발달 검사

사회성 발달 측정도구는 사회적 기능 진단 도구(Social Skills Diagnostic Screen)와 아동의 사회성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87이다. 사회성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책

임성, 협동성, 근면성을 각 10문항씩 모두 4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검사는 주어진 문항에 따라 5점 Likert척도로 되어있다.

### 라. 학교생활화(KSD)

학교생활화란 아동의 학급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위치, 학급 내에서의 역할, 학급 적응 상태, 학업성취와 의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 자신을 포함하여 교사, 친구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는 검사이다. 진단기준은 동적가족화에 준하는데, 일반적으로 인물상의 행위, 양식, 상징, 역동성, 인물상의 특성의 5개 영역이다(정현희, 2008).

## 연구절차

본 연구의 상담기간은 2008년 9월부터 주 2회 총 12회기로 매 회기 소요 시간은 60분이다.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교실에서 사전 검사, 미술상담 프로그램, 사후 검사 순으로 실시하였다.

## 미술상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한국미술 활동프로그램학회, 1996)과 실제적용 중심의 미술치료(정현희, 2008), 초등학교 고립아동에 대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김정민, 2007)의 내용을 응용하여 미술치료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연구의 대상 및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표 1. 미술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및 개요

단계	회기	주제	활동내용	목표	시간	
친밀감 형성 및 자기개방	1	별칭 짓기	· 자신과 어울리는 별칭 짓기 · 별칭에 어울리는 명함 만들기 · ○-△ 관계도 그리기	· 호기심, 친밀감 형성 · 참여 동기 증가 · 현재 주변의 상황탐색	60분	
	자기 탐색 및 이해	2	HTP	· 집-나무-사람 그림 그리기 · 그린 내용 설명하기	· 자신에 대한 이해 · 자기 개방 및 심리진단	60분
		3	빗속의 사람	· 빗속의 사람 그리기 · 빗속의 사람에 대한 내용 설명하기 · 그림의 내용, 그림 그릴 때의 느낌 이야기하기	·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능력 기르기 · 자신에 대한 이해	60분
		4	이것이 아니다	· 잡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 찾아 붙이기 · 콜라주 기법을 통해 자신을 광고하기 · 작품 완성 후 감상하기	· 거부의 감소 · 분노의 표출 · 내면의 장점 찾기	60분
대인관계 향상 및 자아성장	5	서로 힘을 모아	· 지점토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기 · 만든 재료를 하나로 모아 이야기 꾸미기 · 만드는 과정 동안 자신의 느낌 이야기하기	· 자기이해 · 자아정체감 발달 · 자신의 통찰 기회 제공 · 협동심 증진	60분	
	6	뮤직 그래픽	· 음악 듣고, 음악에 어울리는 단어 및 문장 떠올려 쓰기 · 음악에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 · 그림 그림을 보고 소감 이야기하기	· 긴장이완 · 타인에 대한 배려심 증진	60분	
	7	손 모양 본뜨기	· 종이에 양손 모양 본뜨기 · 오른 손에 장점, 왼손에 나의 단점 적기	· 자신의 장단점 파악 · 타인 이해 및 사회성 향상	60분	
	8	사랑이 가득한 나	·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기 · 그림 그리고 난 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느낌 나누기	· 자기탐색 · 자아존중감 증진 · 사회성 향상	60분	
	9	공동작품 만들기	· 찰흙을 이용하여 함께 공동작품 꾸미기 · 작품을 만든 소감 발표하기	· 대인관계기술 향상 · 협동심 및 상호 존중감 향상	60분	
	10	협동화 그리기	· 주제를 주지 않고 침묵 속에서 함께 그림 그리기 · 주제를 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그림 그리기 · 그림을 그리는 동안 느낀 점 이야기하기	· 타인에 대한 이해 · 관심 표현 · 협동심 증진 · 사회성 향상	60분	
마무리 및 새로운 시작	11	나는?	· 전지에 몸 안쪽의 선을 따라 신체 본뜨기 · 서로에게 필요한 선물 주기(웃, 마음 성격, 물건 등)	· 타인 존중 · 대인관계 개선 · 타인에 대한 관심	60분	
	12	작품과일 만들기	· 프로그램 하는 동안 만든 작품으로 작품집 만들기 · 작품을 보면서 소감 이야기하기	· 과정 경험 정리 · 용기와 희망, 자신감 갖기	60분	

##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에게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적응 행동의 변화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의 전반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사례연구로서 '학교생활 적응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사회성 발달 검사'의 및 투사검사(KSD)의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고, 미술상담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회기별로 요약·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고립 행동을 연구자의 관찰에 의해 비교·제시하였다.

### 부적응 행동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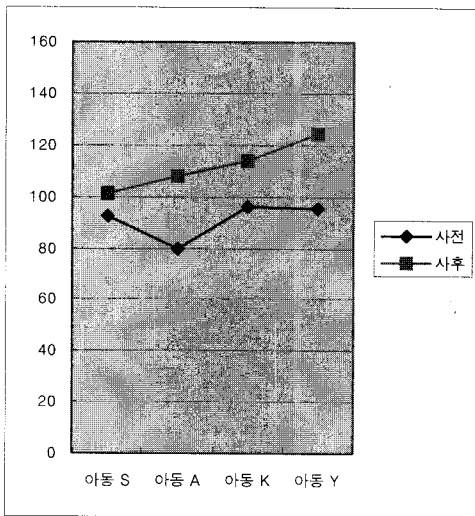


그림 1. 학교생활 적응 검사의 사전·사후 비교

대상 아동의 부적응 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생활 적응 검사'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점의 변화는 최저 9점

에서 최고 29점까지 학교생활 부적응도가 변화하였으며, 대상 아동 모두가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 검사의 기준으로 삼았던 100 점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생활 적응 검사가 가장 낮았던 아동 A는 학교생활 적응도가 80점에서 108점으로 28점이 높아졌으며, 아동 Y는 95점에서 124점으로 대상 아동 중 가장 큰 폭으로 변화를 보였고, 아동 A와 아동 K도 각각 28점과 18점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의 변화

대상 아동의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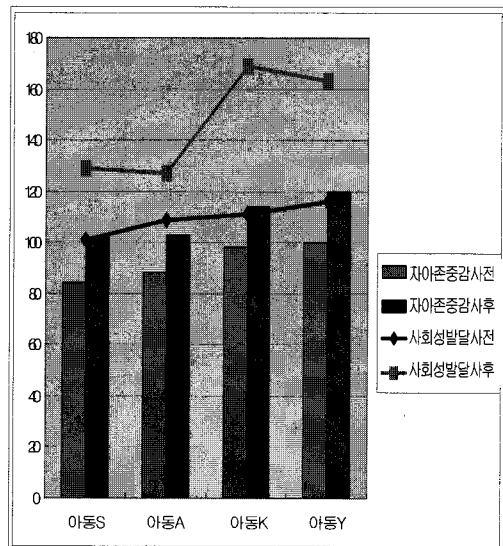


그림 2.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 검사의 사전·사후 비교

표 2. 아동들의 KSD 사전·사후 검사 비교

대상	사전	사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li> <li>·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시고 자신은 그림 속이 아닌 그림 밖의 자리에 있다고 하였다.</li> <li>· 교실 안에 앉아 있으면 두렵다고 하였다.</li> <li>· 공부하는 순간이 재미있는지를 물었더니 자신이 없다고 대답하였다.</li> <li>· 교사와 급우들의 얼굴을 그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무섭다고 하였다.</li> <li>· 교사 및 급우들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회 날 학급대항 달리기 선수로 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운동회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li> <li>· 비록 2등으로 달리고 있지만, 운동회 당일날 느꼈던 자신의 긴장감이 그림 속에 맘을 흘리는 모습으로 재미나게 드러나 있다.</li> <li>· 자신을 응원하고 있는 급우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렸는데, 자신을 응원해 주어서 매우 고맙다고 하였다.</li> <li>· 자신을 응원해주는 교사의 모습을 그렸으며,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물어보자 너무 신났다고 대답하였다.</li> </ul>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li> <li>· 교사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학급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li> <li>· 그림 하단의 오른쪽 큰 머리 사이에 작은 머리의 왜소한 자신의 모습을 뒷모습만 그렸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대답하였다.</li> <li>· 수업시간을 그린 이유를 물으니 학급 내에서 공부할 때가 가장 편하다고 대답하였다.</li> <li>· 급우들과 교사는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공부에 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즐겁지는 않다고 하였다.</li> <li>· 자신을 왜 작게 그렸는지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li> <li>· 자아상이 작게 나타나 있으며, 급우들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량시간에 친구들과 공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li> <li>· 자신이 공기를 이기지는 않지만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저도 상관없다고 대답하였다.</li> <li>· 공기놀이를 하는 급우들의 모습이 다 즐겁게 웃고 있으며, 앞모습이 모두 행복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급우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게 되었으며, 상호작용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li> <li>· 사전검사와 달리 자아상의 크기가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으며,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교사를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림으로서 자신이 지지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li> <li>· 교실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묻자, 시끌벅적 하지만 다들 즐겁고, 그 속에 자신도 함께 행복해 지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다.</li> </ul>

표 2. 아동들의 KSD 사전·사후 검사 비교(계속)

대상	사전	사후
K	 <p>·아침 독서 시간의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교실의 분위기를 물어보자, 교사가 교실을 통제하고 있고, 독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조용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신은 어디에 있냐고 묻자 공간이 좁아서 자신을 그리지 못했다고 대답하면서 오른쪽 하단의 바로 다섯 번째에 있다고 하였다. ·그림 속에 자신을 그리라고 하였지만 자신보다 타인을 중요시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웃고 있는 교사의 얼굴로 보아 교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자신과는 거리가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중에서 급우들과의 관계가 가장 적은 시간을 그리는 것으로 보아 사회성이 부족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p>	 <p>·피구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사전검사에서 정적인 모습을 그렸던 반해 사후 검사에서는 활동적인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아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자아상을 가장 먼저 크게 그리고, 이후 교사와 친구들을 그렸는데, 즐거운 표정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와의 거리 및 주변 급우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 그림 속에 표현되고 있다. ·피구를 하고 있는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묻자, 굉장히 신나고, 주위의 급우들이 멋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놀이를 즐기는 급우들의 다양한 표정을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p>
Y	 <p>·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연필로 자신을 동그라미를 그리며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학급에서 덩치가 작지 않은 편입에도 주위의 급우들보다도 자신의 자아상이 작게 드러나 있다. ·급우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묻자 옆의 짝궁이 자신을 매우 짜증나게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왜 그런지를 묻자 자신이 괴롭혔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자, 친구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급우들의 모습을 모두 뒷모습으로 그렸는데, 어떤 표정인지를 묻자, 그런건 '몰라요'라고 대답하였다.</p>	 <p>·운동회날 청백계주 대표로 달리기를 하는 자신이 결승선에 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자아상이 종이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면서 가장 크게 그려져 있으며, 그 주위를 자신을 응원하는 교사와 급우들의 모습, 저서 슬퍼하는 다른 반의 친구 모습 등을 다양하게 나타냈다. ·자신이 1등으로 들어와서 좋아하는 교사의 모습을 가장 위쪽에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교사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대답하였다. ·급우들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던 사전검사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밝고 긍정적으로 표현되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어떤지를 물어보자, 너무 마음에 든다고 대답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급우들과 선생님에게 많이 보여주어야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변화를 알 수 있다.</p>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15점에서 20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아동 K의 사회성 발달 점수는 111점에서 169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변화를 보였으며, 아동 S, 아동 A, 아동 Y는 각각 28점, 18점, 47점이 각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상담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며, 미술활동 자체가 집단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 KSD 그림분석에 의한 변화

대상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교사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기 위하여 미술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학교생활화(KSD) 검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KSD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 논의

본 연구는 상담활동의 한 방법으로써 미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적응 아동에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성 발달을 도와줌으로써 보다 확고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여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실시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변화를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적응 검사'를 사전·사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

교·분석하였다. 학교생활 적응 검사 결과 부적응도가 가장 낮았던 아동 A의 경우 80점에서 108점으로 학교생활 적응도가 28점이나 상승하였으며, 아동 Y의 경우는 95점에서 124점으로 29점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홍정화(2004), 이미애(2001)의 미술상담이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 같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발달의 양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미술 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이 증진되었으며, 사회성 발달의 경우 18점에서 58점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화정(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미술상담이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업능력이나 사회적 유능감, 대인관계 형성, 스트레스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술상담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김미숙(200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셋째, 부적응 아동의 심리 상태, 성격, 학교생활을 분석하기 위하여 투사검사(KSD)를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실시하여 그림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사전 검사 결과 네 아동 모두 학교생활의 중심이 교사와 수업시간으로 그려지고,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외롭고, 우울하거나 학급 내 대인관계에서 고립된 모습을 주로 그린 반면에 사후 검사 결과 학교생활의 중심이 자신으로 바뀌고, 학교생활에 있어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그림을 설명하는 과정에

서도 즐겁고,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미술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호 작용 및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아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미술상담 프로그램이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림을 분석함에 있어 김정민(2007)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자도 상담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그림 속에 담긴 내용을 대상 아동의 활동 모습과 대화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아동이 활동 과정과 아동들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매 회기마다 각 아동의 행동특성을 기술하는 질적 분석을 통하여 부적응 아동이 미술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진행 과정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회기 활동 소감문을 첨부하였다. 프로그램이 1~4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자기개방 및 이해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숙고함으로써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5~10회기 동안은 타인에 대한 관심 및 상호 존중, 배려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지하도록 하여 자아를 성장시키는 시기였다. 이 시기 동안 자신을 표현하고 나와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1~12 회기는 미술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실제에 적용하는 법을 익

히는 과정으로 스스로 주위의 상황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기르고,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연구자가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부적응 아동들의 학교생활 모습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이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아동 S의 경우 학기 초부터 프로그램 시작 이전까지 친구들과 이야기할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연구자에게도 거의 시선을 맞추다거나 아주 간단한 질문 이외에는 말을 하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는 시선을 맞추며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몇몇 어린이들과는 작은 소리로나마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으며, 자신이 가장 잘하는 달리기 대표 선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 A도 늘 우울한 얼굴로 의욕 없이 주변인처럼 학교생활을 하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 K는 주눅 들고 위축된 모습으로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였는데,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 팀장으로 다른 아동들을 이끌어가면서 학교생활을 할 때도 봉사에 먼저 나서고, 의사표현도 명확하게 하며, 주위의 남자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 Y는 자신보다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급우들로부터 "Y가 요즘에는 너무 착

해졌어요”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미술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아동들끼리 어울리는 것에서 벗어나 교우관계의 폭을 한층 넓혀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장기적으로 부적응 아동들의 학교생활 모습에서 보다 긍정적인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 모두 미술 활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활동인데다가 자기개방 및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경험함으로써 12회기의 짧은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행동이 두드러지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적응 아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 아동에게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적응 행동을 낮추고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부적응 아동에게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켰다. 학교생활 적응 검사에서 80~96점이었던 사전 점수가 사후 검사에서는 101~124점으로 높아졌다. 부적응 아동들은 미술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자기 개방과 자기이해, 자신감 고취, 대화와 협동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대인관계기술

및 상호존중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부적응 아동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타인과 대화 및 협력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학교생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다. 미술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의존적이었던 아동들이 활동이 진행되면서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미술상담을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아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성이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부족한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대인관계 기술을 길러줌으로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사회성을 발달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술상담 프로그램은 부적응 아동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초기에는 소극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종결단계에 가면서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의사표현이 자유로워졌으며, 자발성, 친밀감, 협동성이 현저히 발달하고, 공동 작업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심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내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4명의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이므로 그 효과성을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둘째, 연구 결과 분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부적응의 원인이 가정환경과 학급환경에 있으므로 연구가 끝난 후 가정과 학급 환경에 따라 다시 정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운영의 시기를 2 학기로 하여 운영하였는데 학기가 시작되는 1학기 때 프로그램을 연장시켜 운영한다면 부적응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 이유가 가정 환경 및 학교생활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프로그램 진행이 요구된다.

셋째,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회기를 주 2회보다 주 1회로 기간을 길게 잡아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행동을 수정하는 가운데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미숙(2002). 자기표현력 신장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미술 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인천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복 등 편저(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민(2007). 초등학교 고립아동에 대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정(2002).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희(2003). 부적응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방법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영(2001). 초등학교 부적응 아동의 지도 실태에 관한 연구. 울산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애(2001).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2008). 실제적용 중심의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조대봉(1992). 인간행동의 이해와 자아실현. 서울: 문음사.
- 한국미술치료학회편(2000).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동아문화사.
- 홍정화(2004). 아동의 부적응행동 완화를 위한 미술치료의 사례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유경(200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Malchiodi C. A. (2000). 미술치료(*The art therapy sourcebook: art making for*

*personal growth, insight and transformation*). (최재영 · 김진연 역). 서울: (주)조형교육(원전은 1998년에 출판).

Rubin, J. A. (2007). Rubin의 통합적 예술치료 (*Artful therapy*). (최소영, 김혜정 역). 서울: (주)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05년에 출판).

• 원 고 접 수 일: 2008년 12월 29일

• 수정원고접수일: 2009년 1월 9일

• 게재 승인 일: 2009년 1월 12일

# A Case Study of ART Counseling on Maladjusted Children's Self-Respect and Social Ability Development

Mi-young Hong

Yongoon Elementary School

Bung-hwan Cho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ut an art counseling program in the elementary school maladjusted child and helped the school life adjustment of the maladjusted child's self-respect and social ability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picked out 4 people children who are the lowest score in the child where the total score is below 100 points sorted 6 grades of Y elementary school in Daejeon. The art counseling program as a reconstruction of the prior study to meet an object of this study was provided to children in experimental group at the researcher's classroom after school for 12 session, two sessions per week. For analyze the study result. First, for quantitatively analysis of an maladjusted behavior compared pre and post test of conduct of school life adjustments test. Second, for confirm the change of self-respect and social ability development pre and post test and analyzed comparison. Third, recognizing trial state change of an maladjusted children put a KSD pre and post test and analyzed comparison with contents of a picture. Fourth, every session of the qualitative analysis which describes the conduct quality of each child led and the maladjusted child should have been visible what kind of change after the art counseling program execution criminal record, compared.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e art counseling program decreased the maladjust conduct of the maladjusted child and is effective to self-respect and social ability development of the maladjusted child. And the art counseling program letting induces the change which is affirmative psychologically with the maladjusted child. As a result, the art counseling program to help the self-respect of the maladjusted child and social ability development, and it will be more effective in the school life adjustment for the maladjusted child.

*Keywords: Art counseling program, self-respect, social ability development*